

KC Green Holdings

2016 December

KC News Letter Vol.86



Contents

1. 베트남 합작 Joint Venture Agreement 체결
2. KC환경서비스 통합 법인 출범
3. 12월 ES 영업 유닛 회의
4. KC솔라에너지(주), 영흥 태양광 3단지 준공식 개최
5. 2017년도 ES 경영전략회의 개최
6. KC코트렐(주), 도라노몬 프로젝트 수주
7. 놀텍코리아의 POWERGEN-INT'L 참가
8. KC코트렐(주), 중기계획 위한 임원워크샵 개최

베트남 합작 Joint Venture Agreement 체결

지난 12월 8일, KC 그린홀딩스와 베트남 현지 폐기물처리업체인 Phuc Loi사(社)의 Lich 대표와의 합작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설립될 합작사는 1차 사업으로 사업장(일반/지정) 폐기물 수거, 재활용, 중간처분(소각)업, 폐유 수거 및 정제처리, 재생유 판매업을 영위할 계획이다. 2차 사업으로는 폐수처리업, 매립사업, 유가금속 재활용 사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Phuc Loi사의 Lich 여사는 베트남에서 10년이 넘게 폐기물 수거와 처리, 판매를 통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 KC의 베트남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Lich여사는 인허가 및 현지 기업 영업, 민원 및 대관 업무, 현지직원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며, KC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설비 운영, 재무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2017년에 정식 합작사를 설립하고, 인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소각로 및 폐유정제설비를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설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KC의 발걸음에 박수를 보낸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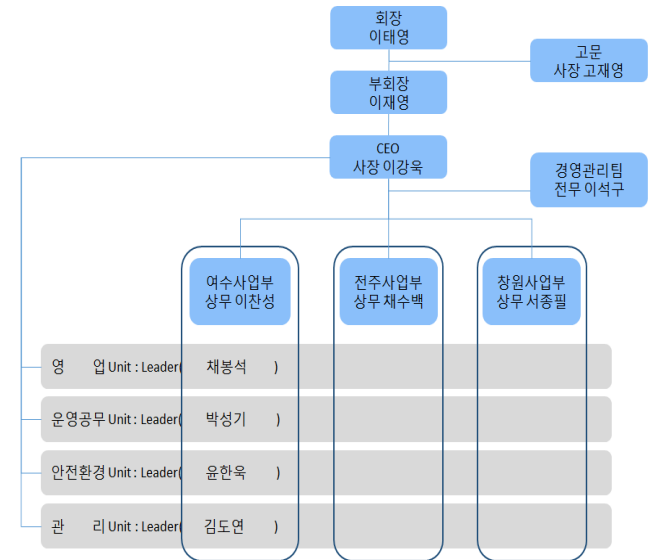


KC환경서비스 통합 법인 출범

지난 12월 28일, 당사 환경서비스 부문 대표회사인 KC환경서비스(주)와 KC한미산업(주), KC에코에너지(주)가 합병하여 KC환경서비스 통합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2000년 여수에 소재한 KC환경서비스를 인수하면서 KC가 국내 환경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이래, 2008년 창원 KC한미산업 합류, 2011년 전주 KC에코에너지까지 합류하며 환경서비스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초기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에 중심을 두었으나 시장 변화에 따라 WtE (Waste to Energy) 부문으로 사업모델을 변경하였고, 2014~15년에 걸쳐 개별 법인 수준에서 가능한 대부분의 설비 확장을 완료하고 운영을 안정화 하였다. 이에, 환경서비스 및 WtE 부문에서 단일기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수도권 및 해외 시장으로 확장, 물질재활용 등의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3사를 합병하였다.

3사는 전사 최적화 관점의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업무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스템 단일화 및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한 경영관리 수준 향상을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통합 KC환경서비스는 여수사업부, 전주사업부, 창원사업부의 사업부제로 운영하며, 서울사무소에서 총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 KC환경서비스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이 기대된다. (끝)



12월 ES 영업 유닛 회의

지난 12월 9일, 경남 창원 KC한미산업 (현재 KC환경서비스 창원사업부)에서 2016년 마지막 영업Unit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시장, 경쟁사, 관련법의 변화에 따른 대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재 각 사들의 경쟁사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2018년 시행되는 자원순환법 도입이 KC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논의를 하였다. 국내 환경 산업의 대표 기업인 만큼, KC는 자원순환법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마지막 순서에는 페드럼 재활용 사업, 소각재 재활용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6년 12월 28일자로 ES 합병 법인이 출범한 만큼, 2017년부터는 통합법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2017년에는 통합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강화된 Unit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회의를 마쳤다.(끝)



KC솔라에너지(주), 영흥 태양광 3단지 준공식 개최

지난 12월 7일 준공식과 함께 KC솔라에너지에 의한 6MW급 태양광발전소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내 설치되었다. 전동기수리동, 자재창고 옆과 소수력 주변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이번 태양광발전소는 KC솔라에너지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영흥 태양광 3단지는 창립 이래 입찰 방식에 의해서는 단일용량 최대 수주 및 준공한 프로젝트로 대외적으로는 KC솔라에너지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KC솔라에너지와 한국남동발전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신뢰를 줄 수 있는 파트너로써의 입지를 구축하였다.

이번 준공식에는 한국남동발전 신성장사업단의 김철규 단장을 비롯한 여러 중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KC솔라에너지는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받아 영흥 태양광 3단지가 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프로젝트로 마무리되었다.

침체된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 속에서 이룬 쾌거로 우리는 17년에도 보다 성공적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입찰 건 뿐만 아닌 자체사업개발 분야에서도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다. (끝)



2017년도 ES 경영전략회의 개최

지난 12월 20일 KC그린홀딩스(주) 상암동 본사 12층 컨퍼런스룸에서 ES Div. 2017년 사업계획서 발표 회의가 열렸다.

각 사의 2016년 사업실적과 2017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ES Div.의 비전 '2020'달성과 우리회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매출액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은 89%, 영업이익은 72%로 설정된 목표에 조금 부족한 결과였지만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낮은 유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KC환경서비스, KC한미산업, KC에코에너지의 3사의 통합에 따른 조직변화와 운영방안을 공지하였다. 회사 조직에 찾아온 변화와 도전으로 2017년에는 ES Div.의 혁신과 재도약을 기대하는 바이다.(끝)

KC코트렐(주), 도라노몬 프로젝트 수주

지난 12월, KC코트렐은 Rectangula Steel Segment for Toranomom Underground Passage Shield Work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 도라노몬 지역의 지하철 역에서 Mori Building 건물로 연결되는 지하 인도 통로 보호 구조물에 Steel Segment를 활용하는 것이다.

고객사는 Suzuki Enterprise Co., Ltd, Kawasaki Trading Co., Ltd., Obayashi Corporation, Metro Kaihatsu, Mori Building Co., Ltd. 이다. 오바야시 건설은 시미즈, 다케나카, 카지마, 다이세이와 함께 일본 5대 건설업체 가운데 하나이며, 오바야시 건설과 최초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히로시마, 오이즈미 미나미 Steel Segment의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

본 계약 체결은 2017년 1월 18일이다. (끝)

놀텍코리아의 POWERGEN-INT'L 참가

놀텍코리아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미국 마이애미주 올랜도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POWERGEN-INT'L에 참석하였다.

이번에 열린 박람회는 미국 최대 규모의 발전 사업 관련 박람회로서 약 1,40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였고 105개의 나라에서 20,000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관람하였으며, 미국의 놀텍시스템도 부스를 열고 참가하였다. GE, MHPS, DHIC 등 EPC 회사부터 다양한 설비 업체까지 미래 발전 사업을 주도하는 업체들이 참가하여 저마다의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였으며 다양한

Conference를 통하여 발전 사업의 최신 Trend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놀텍시스템도 흥미로운 프로모션으로 팝콘 및 맥주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력제품인 DSI와 APC 사업을 바탕으로 Lodge Cottrell의 EP 사업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스에서 제품 홍보하는 시간을 가져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놀텍코리아는 놀텍시스템의 POWERGEN-INT'L 참가를 참관함으로써 향후 박람회 참가 등에 대한 Know-How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아울러 발전사업의 고객 Pool을 늘리고 Pump, Compressor 등 Main Item에 대한 협력업체 발굴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끝)



KC코트렐(주), 중기계획 위한 임원워크숍 개최

KC코트렐(주)는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강화도에서 6-3 중기계획을 위한 임원 및 팀장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KC코트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KC코트렐의 모든 임원, 팀장, 경영지원팀, 그리고 KC그린홀딩스 전략경영팀이 함께 참석하였다.

KC코트렐 서동영대표이사는 KC코트렐의 6-3 중기계획은 기존 사업의 확대,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확보, 그리고 지속 성장 및 신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역량의 확보라는 기본 과제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세워나가기에 당부하였다.

앞으로 KC코트렐이 맞이하게 될 3년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각 팀별로 중기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고, KC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열렸다. 워크숍에 참석한 팀장들은 토론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함께 팀의 목표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팀 구성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날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보다 밝은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강화도 전등사를 산책하며, KC코트렐의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며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끝)

